

새만금산단에 미래모빌리티 허브 탄생

전북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개소식... 미래차 전환사업 발굴·기업지원 등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새만금산단에서 미래차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유관기관 및 기업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는 2018년 4월 군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자동차산업 부흥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예타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융합기술 중심이 될 플랫폼 역할을 수행예정이다.

센터는 사업비 542억원이 투입되어 총 2동(연면적 1만1,144㎡) 규모로 올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새만금산단에서 미래차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 5월 준공됐다. 연구 및 제조를 위한 20개실의 입주공간과 전시 및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 테크비

이를 통해 친환경차·자율주행차 핵심부품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업유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래차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현재 10개 친환경·자율주행차 핵심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으며, 추가로 10개 기업을 모집 중이다. 센터는 입주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미래차 전환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의 개소는 전북이 글로벌 상용차 시장 중심지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업, 연구소, 학계가 협력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와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서 도내 5개 시군, 우수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도내 5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포상금 총 4,4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증 정신질환의 증증화 및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일상 속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며, 14개 시군 대상 홍보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쳤다.

특히,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도내 950명의 도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마음 건강 돌봄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김제시가 대상을 차지하며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상했고, 전주시와 임실군이 우수상(각 700만 원), 남원시와 정읍시가 장려상(각 500만 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재난안전 우수사례 발표 및 2025년 안전관리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 재난안전 민간단체 우수사례 발표회 성료

재난안전 유관기관-민간단체 참여... 재난 대응 시 민관 협력 강화
안전관리계획·우수 경험·지식 공유 등... 안전문화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재난안전 우수사례 발표 및 2025년 안전관리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재난안전 민간단체들의 우수활동과 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수활동 도지사 표창,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안 보고, 2024년 재난안전 민간단체 주요 성과 및 단체별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드러진 활동을 한 7개 단체 대상자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지역 내 안전위해요소 확산 방지에 기여한 익산시 안전보안관 하성희님 △심정지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한 완주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정란님 등 7명이다. 이들은 안전실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천력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어, 이은택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이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안을 보고했다.

올 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최근 습설 폭설피해 등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난은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

라, 도의 안전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및 평상시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올해 재난안전 민간단체 주요성과와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를 위해 고생한 36보병사단의 노고와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명구조한 의용소방대 사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이 소개될 때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귀한 활동 성과에 감사드리며, 민간 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안전한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2년 연속 환경부 공모 선정 '깨끗' 국가생태관광지 공모사업 - 장수 금강 첫물 뜬봉샘 · 수분마을

국가생태관광지 공모사업 - 장수 금강 첫물 뜬봉샘 · 수분마을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 -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국가생태관광지 공모사업'에 장수군의 '금강첫물 뜬봉샘 · 수분마을'과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전주시의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가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장수군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생태적 보전가치와 체험·교육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전주의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는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걷기 체험과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도 남원의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고창의 '탐사르 운곡습지 생태탐방로(총사업비 30억원)'가 각각 국가생태관광지와 국가생태탐방로로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국가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까지 10년간 760억원을 투자해 총 12개 생태관광지를 조성했으며, 이 중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 △정읍 월영습지와 솔타숲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 4개소가 환경부의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면 운영비 지원 및 친환경 숙박시설 구축을 위한 '에코촌 조성사업' 등 추가 국가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585억원을 투입해 7개의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과 14개 시군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결하는 삼천리길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브랜드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순욱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2년 연속 국가공모사업 선정은 전북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책적 노력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농산시책 평가 2년 연속 '1위'

쌀 적정생산·논 타작물 육성 등... 식량수급 안정 기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 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농산시책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1998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의 핵심인 쌀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정부 표창 중 하나로 꼽힌다.

평가는 쌀 안정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생산비 절감 노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하며, 올해는 특히 쌀 적정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 노력에 중점을 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며 벼 재배 면적 감축과 농가 소득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위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1,200ha)과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

원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했으며,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량종자 재종포 조성, 공동육묘장 지원 등으로 56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북은 논콩 재배면적에서 전국 1위(1만3,234ha), 가루쌀 재배면적에서 2위(2,278ha)를 기록하며 타작물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논콩 재배는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생산품목 주관 국산 밀·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국산 밀 생산단지 장려상(2개소), 국산 콩 특별상(2개소)을 수상하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도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5억원(전체 국비의 68.2%)을 확보하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농업 현장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 다각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이 97개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효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